

경기일보

2019년 07월 19일 (금)
종합 02면

‘한탄강 주상절리길’ 119km 전구간 내년 개통

연천군 임진강·한탄강 합수지점부터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까지 한탄강 삼백리의 빼어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119km 조성사업이 내년 완료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강원도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인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은 전체 119.65km 구간 가운데 현재 연천 구간 23.5km 중 17.7km, 포천 구간 53.0km 중 23.0km, 철원 구

연천 임진강·한탄강 합수지점~철원 DMZ ‘절경 로드’

간 43.15km 중 40.25km가 각각 완료됐다. 잔여 구간 중 연천 5.8km는 연말까지 완료돼 연천 전 구간이 연결된다. 포천지역은 남은 30.0km 중 15.6km는 연말까지 공사가 끝나고, 14.4km는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내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2.9km만 남은 철원 구간도 내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은 내

륙에서 보기 어려운 화산암지대이자 주상절리와 적벽 등 경치가 빼어난 한탄강 일대에 명품 탐방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한탄강 일대는 고·중·신생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암석이 분포하는 등 지질학적으로도 중요한 곳으로, 환경부가 지난 2016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했다.

경기지역에 308억 원, 강원지역에 279억 원을 각각 투입해 탐방로 조성

외에 출렁다리와 전망대, 쉼터 등의 시설도 갖추게 된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3개 시·군을 잇는 주상절리길이 완료되면 관광객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한탄강은 비둘기낭 폭포, 화적연, 재인폭포 등 명소가 많은 곳으로, 주상절리길로 연결되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며 “관광객이 늘어나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충부일보

2019년 07월 19일 (금)
수도권 08면

명품탐방로 ‘한탄강 주상절리길’ 내년 완공

연천·포천·철원 119km 공사
출렁다리·전망대·쉼터도 갖춰
관광객 증가 경제 활성화 기대

연천군 임진강·한탄강 합수지점부터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까지 한탄강 삼백리의 빼어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119km 조성사업이 내년 완료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강원

도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인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은 전체 119.65km 구간 가운데 현재 연천 구간 23.5km 중 17.7km, 포천 구간 53.0km 중 23.0km, 철원 구간 43.15km 중 40.25km가 각각 완료됐다.

잔여 구간 중 연천 5.8km는 연말까지 완료돼 연천 전 구간이 연결된다.

포천지역은 남은 30.0km 중 15.6km는 연말까지 공사가 끝나고 14.4km는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2.9km만 남은 철원 구간도 내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은 내륙에서 보기 어려운 화산암지대이자 주상절리와 적벽 등 경치가 빼어난 한탄강 일대에 명품 탐방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한탄강 일대는 고·중·신생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암석이 분포하는 등 지질학적으로도 중요한 곳으로 환경부가 2016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했다.

경기지역에 308억 원, 강원지역에 279억 원을 각각 투입해 탐방로 조성 외에

출렁다리와 전망대, 쉼터 등 시설도 갖춘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3개 시·군을 잇는 주상절리길이 완료되면 관광객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한탄강은 비둘기낭 폭포, 화적연, 재인폭포 등 명소가 많은 곳으로, 주상절리길로 연결되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며 “관광객이 늘어나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성기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내년 끝낸다

인천 연말-포천·철원 내년 ‘전구간 연결’ 완료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한탄강 합수 지점부터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까지 한탄강 삼백리의 빼어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119km 조성사업이 내년 완료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강원도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인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은 전체 119.65km 구간 가운데 현재 연천 구간 23.5km 중 17.7km, 포천 구간 53.0km 중 23.0km, 철원 구간 43.15km 중 40.25km가 각각 완료됐다.

잔여 구간 중 연천 5.8km는 연말까지

완료돼 연천전 구간이 연결된다.

포천지역은 남은 30.0km 중 15.6km는 연말까지 공사가 끝나고 14.4km는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2.9km만 남은 철원 구간도 내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은 내륙에서 보기 어려운 화산암지대이자 주상절리와 적벽 등 경치가 빼어난 한탄강 일대에 명품 탐방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한탄강 일대는 고·중·신생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암석이 분포하는 등 지질학적으로도 중요한 곳으로 한

경부가 2016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했다. 경기지역에 308억원, 강원지역에 279억원을 각각 투입해 탐방로 조성 외에 출렁다리와 전망대, 쉼터 등 시설도 갖춘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3개 시·군을 잇는 주상절리길이 완료되면 관광객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한탄강은 비둘기낭 폭포, 화적연, 재인폭포 등 명소가 많은 곳으로, 주상절리길로 연결되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며 “관광객이 늘어나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남춘기자 bakal@incheonlbo.com

기호일보

용산~도라산역 DMZ트레인 객차서 사진 전시 오픈런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코레일은 지난 17일부터 종료일을 두지 않고 용산~도라산역 구간의 DMZ 트레인 객차에서 ‘DMZ KOREA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리고 있는 사진전을 확대한 것으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판문점에 머물던 중립국 감독위원회(NNSC) 군인들이 촬영한 남북의 희귀한 모습을 담고 있다. 전시작품 중에는 대중들이 쉽게 볼 수 없던 1950년대 후반 개성 주민의 일상 모습, 1953년부터 8년간 폴란드에 보내졌던 1천500명의 북한 전쟁고아 사진도 있다. 또한 열차 탑승객들이 사진전 관련 엽서를 써 볼 수 있는 ‘DMZ 엽서 써 보기 코너’도 마련돼 있다.

‘오픈런’ 형태의 전시로, 종료일을 미리 정하지 않고 지속적인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69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사진전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1950년대 후반 전쟁 직후 남북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전시 종료일을 정하지 않았으니 더 관심을 갖고 찾아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시를 볼 수 있는 DMZ 트레인은 주 5일 운행되며, 용산에서 출발하는 도라산 평화관광 상품과 연계된다. 이상품은 도라산평화공원, 제3땅굴 등을 둘러보는 코스로 운영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경기관광공사, DMZ 트레인서 'DMZ KOREA 사진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코레일이 용산~도라산역 구간의 DMZ 트레인 객차에서 'DMZ KOREA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전시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리고 있는 사진전을 확대한 것으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판문점에 머물던 중립국 감독위원회 군인들이 촬영한 남북의 희귀한 모습을 담은 40점이 선보입니다.

전시 작품 중에는 대중들이 쉽게 볼 수 없었던 1950년대 후반 개성 주민의 일상 모습이나 1953년부터 8년간 폴란드에 보내졌던 1천500명의 북한 전쟁 고아 사진 등도 전시돼 있습니다.

또, 열차 탑승객들이 사진전 관련 엽서를 써볼 수 있는 'DMZ 엽서 써보기 코너'도 마련돼 있습니다.

전시 특징 중 하나는 '오픈런' 형태로, 종료일을 정하지 않고 전시를 지속한다는 점입니다.

DMZ 트레인은 주 5일, 용산에서 출발해 도라산역까지 운행하며, 도라산 평화공원, 제3땅굴 등 도라산 평화관광 상품과 연계돼 있습니다.